

2017 Hansae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2017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The Spirit of Thailand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2017
07.12-07.18

인사아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주최: 한세예스24문화재단

기획: 김상민, Thavorn Ko-Udomvit

후원: 외교부, 주한국태국대사관, 한-아세안 센터, 주태국한국문화원,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Ardel Gallery of Modern Art

HANSAE YES24 FOUNDATION



외교부



ASEAN-KOREA CENTRE



한국문화원
ศูนย์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

O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ARDEL
Gallery of Modern Art

www.hansaeyes24foundation.com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 013

HAN
SAE
in
SUMMER



법인 마스코트를 소개합니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믿음뿐 아니라, 법인 식구들에게 웃음꽃을 선사하는 귀염동이. 각 법인의 마스코트 반려동물을 공개한다.

MASCOT 1 법인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세 친구

과테말라

삼봉이(암컷), 본봉이(수컷), 오바(수컷)

예전에 털갈이가 제대로 안 돼 지저분해 보이길래 브러쉬를 사서 빗겨주었는데요, 빗을 때마다 벼룩이 후드득후드득 떨어져서 브러쉬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만지지도 않고요.

삼봉이 본봉이 오바

MASCOT 5 VN기숙사 E동에서 살고 있음

베트남

올림이(수컷)

쥐 사냥이 취미이고, 점프가 특기인 아주 활발한 개입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주는 밥 이외에도 점심시간마다 계장님들이 사료를 쟁겨주시는데, 모두 다 잘 먹습니다. 때론 법인 밖으로 나가서 다른 개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MASCOT 2 법인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이쁜 고양이

나카리과

띠또(수컷)

2016년에 태어난 아메리칸 슷헤어입니다. 업체 유기묘를 입양했는데요. 목욕을 어찌나 싫어하는지, 평소 용변을 잘 가리는 녀석이 목욕시켰다고 빠져서 집사인 박현수 주임 방에 큰 볼일을 봤습니다.

MASCOT 6 VN기숙사 E동에서 살고 있음

베트남

메주(암컷)

나무 막대를 좋아하고 원기를 끌어모으는 걸 좋아하는 디테일한 녀석입니다. 관리자나 식당 아주머니들 전부 휴가를 떠나는 연휴 기간에는 당직자들이 밥을 쟁겨주고 있는데, 이것이 당직자들의 큰 임무 중 하나입니다.

MASCOT 3 TG법인 관리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식구

베트남

영순이(암컷)

공장장님이 산책하다 강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강아지를 구출해 오셨습니다. 혼자 울고 있던 강아지가 자라서 정문 앞의 새로 온 개를 견제하네요. 간식을 위해 이 족보행 하는 특기를 지녔습니다.

MASCOT 7 VN기숙사 E동에서 살고 있음

베트남

차콜이(수컷)

차콜이는 올림이 괴롭히는 걸 좋아합니다. 1년이나 늦게 태어난 녀석이 형 무서운지 모르네요.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올림이가 봐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MASCOT 4 C&T 개인 거처 중

베트남

풀이(수컷)

풀이는 TG에 살고있는 영순이와 금슬이 너무 좋아 슬하에 자식이 11마리나 있죠. 결국 격리조치가 결정되어 이리 오게 됐습니다. 예전 TG에 있을 때, 새한테 깨불다가 새 여럿이 함께 공격해서 머리에 상처가 있다는 슬픈 이야기가.

MASCOT 8 VN기숙사 식당 앞에서 생활함

베트남

까미(암컷)

까미가 좋아하는 것은 차콜입니다. 멋있는 남자를 얻기 위해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법인 분들이 공원 내에서 산책하다 보면 즐즐 따라옵니다.

종합 온라인 쇼핑몰 예스24 VINA의 문화 속으로~!

2010년에 시작한 예스24 VINA는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화장품, 의류 외에 더 많은 분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하며 거침없이 도전하는 예스24 VINA를 만나보겠습니다.



종합 온라인 쇼핑몰 '예스24 VINA' 법인 소개

예스24 베트남 법인은 종합 온라인 쇼핑몰로, 2010년 3월 시작하여 현재 약 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협업하여 화장품, 의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제품을 베트남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500여 개의 현지 업체와의 협업으로 600,000여 개의 상품을 다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연 티켓, 여행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 확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간의 단합을 위하여 연간 아유회, 워크숍, 월별 생일/장기근속 축하 파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먹을수록 빠져드는 '베트남 음식'



페(Pho) : 베트남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현지에서의 맛은 남다릅니다. 숙주, 고추, 고수, 라임, 양파, 고기 등을 기호에 맞게 넣어 독특한 향과 맛에 더해진 진한 고기 육수의 깊은 맛을 꼭 현지에서 느끼보시길 추천합니다.

분짜(Bua Cha) : 하노이 대표 음식으로, 늘만이라는 피쉬소스에 다진 돼지고기 튀김과 다양한 채소를 함께 적셔 먹습니다. 베트남 오바마가 베트남 방문 시로컬 분짜 전문집에 들러 보리 맥주와 함께 즐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찌오(Banh xeo) : 반찌오는 봉우리방 대표 음식으로, 한국의 부침개와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커다란 크기에 꽉 찬 속 재료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 중 통통한 새우와 광고기와 숙주가 잘 어우러진 Banh xeo tom thit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우수사원 한국연수'의 기회

예스24 VINA에서는 전 시원에게 꿈같은 '한국 연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년에 한 번, 약 4~5명의 현지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3박 4일 한국 연수를 지원하여 직원 복지 강화 및 사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스24 VINA 주변 맛집 & 쇼핑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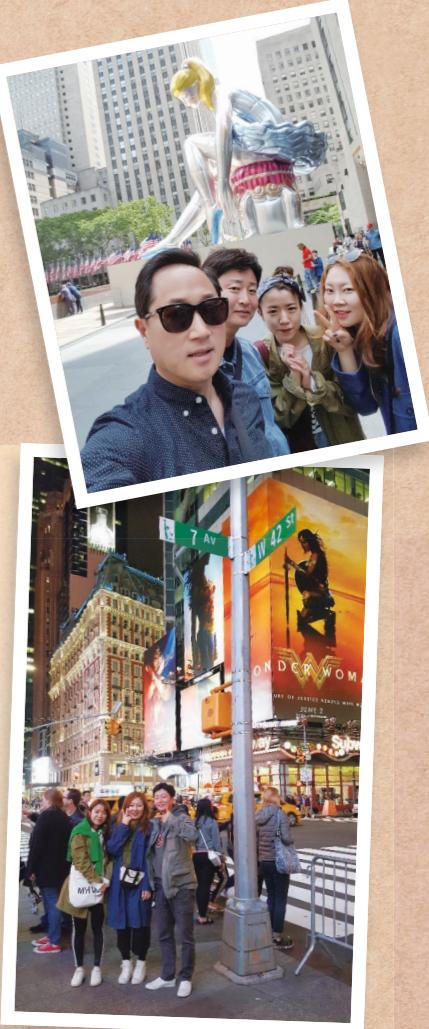
Cresent mall : 가장 유명한 복합쇼핑몰로 영화관, 볼링장, 오락실, 푸드코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몰 중앙에 호수가 있어 호숫가를 따라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주말마다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로 활기찬 모습입니다.

Vivo City : 최근에 생긴 복합쇼핑몰로 영화관, 볼링장, 오락실, 푸드코트, 로컬 트립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몰 중앙에 호수가 있어 호숫가를 따라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주말마다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로 활기찬 모습입니다.

뉴욕 연수를 마치고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스테йт 빌딩,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등이 있다. 그러나 내 머릿 속에 담겨있는 뉴욕의 모습은 브래드 피트가 출연한 리먼 사태의 베블봉과 과정과 '빅소트'란 영화에서 직장을 잃고 사무 도구를 쟁겨 양자차실한 모습으로 거리를 나서던 월가 엘리트 뱅커들의 산상이다. 문득 일정을 살펴보니 월스트리트와 조지 워싱턴 동상이 있는 뉴욕시청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묘한 감정이 들었다.

글_엠케이트렌드 TBJ 사업부장 김원영이사



New York



한세예스24홀딩스 각 사 막내 사원 7인의 이야기

“우리는 당당하고 열정 많은 막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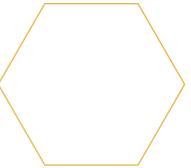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입사하면 어느 신입사원이든 ‘적응’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적응을 마치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해내는 막내들이 있다. 예스24 뉴미디어팀 이정연 인턴, 한세드림 모이몰 출산용품팀 김평강 주임, FRJ Jeans MD팀 이주영 주임, 엠케이트렌드 NBA사업부 디자인실 김민소 주임, 동아출판 수학교과서팀 꽈자혜 사원, 한세실업 수출 8본부1부1팀 방그린 인턴, 한세예스24홀딩스 경영분석1팀 허지행 인턴이 모였다.

글_한울 사진_안지섭

처음이라 더 설레는 직장, 그리고 일

막내 사원들에게는 응당 ‘처음’이라는 단어가 악숙하다. 사회생활도, 직장 선배들과의 관계도 처음이다. 자칫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매사에 긴장하며 지내는 이들이 바로 막내 사원이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한세예스24홀딩스의 막내 사원 7인은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는 신출내기가 아닌 세련되고 당당한 막내 사원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이들. 올 4월에 입사한 예스24 뉴미디어팀 이정연 인턴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을 느낀다. “책을 좋아해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뤄져서 무엇보다 기뻐요. 현재 SNS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스24가 인터넷서점 팔로워 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와 책을 추천하고, 관련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즐겁고요.” 엠케이트렌드 NBA사업부 디자인실 김민소 주임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즐거움을 한참 발견 중이다. 2016년 1월에 입사해 지난 1년 동안 디자인 보조 업무만 맡다가 올해 F/W 시즌을 맞아 자신만의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 무척 기쁠 것 같아요.” 김민소 주임은 설렘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일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동아출판 수학교과서팀 꽈자혜 사원도 최근에 기쁜 일이 있었다. 그녀가 만든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된 것. 일하면서 느낀 보람이야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번 기회로 꽈자혜 사원은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교과서에 이어 참고서 개발을 새로 시작했어요. 짧은 기간에 참고서를 마스터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 교과서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제작에 많은 제약이 따라요. 그만큼 해당 분야의 역사나 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선배님들을 보면 ‘저도 저런 선배가 돼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막내 이자 후배이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선배가 되고 직장 상사가 될 터. 한세예스24홀딩스 경영분석1팀 허지행 인턴은 후배들이 스스럼없이 찾는 선배, 사석에서 술자리도 가지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며 5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사람으로!

막내 사원들은 팀 내에서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궂은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선배들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시키고 싶지만 아직은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해 선배들에게 의지해야 할 때가 많다.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한세드림 모이몰 출산용 품팀 김평강 주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역할은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단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겠죠.”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막내 사원들이 털어놓는 직장 선배들과의 소통 ‘꿀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심’! FRJ Jeans MD팀 이주영 주임은 사소한 일이나 상황에서라도 두 귀를 활짝 열어놓는다며 미소 지었다. 자신과 관련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보고 들으면 그만큼 업무가 향상되고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내 사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고. 이주영 주임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한세실업 수출 8본부1부1팀의 방그린 인턴은 “선배를 어렵게 보기보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완벽한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애쓰기보단 사람과 사람으로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는 게 중요 한 것 같아요.”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는 기준점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신입 시절에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가 지나고 연차가 쌓일수록 그 기준점은 자기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한세예스24홀딩스 각 사 막내 사원 7인은 이미 이를 알고 있는 듯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히하면서 한 발 한 발 발전을 이룰 거라고 다짐하는 신입사원의 미래는 그래서 더욱 눈부실 것이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 막내 사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선배님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WE ARE THE
YOUNGEST





웅동중학교 세상의 지혜를 선물받다

예스24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책보내기 캠페인 1차에서 창원 산골 마을의 작은 학교, 웅동중학교가 1등을 했다. 책을 좋아하는 꿈나무들에게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돌아온 책캠퍼지의 보고이다.

안녕하세요. 책캠퍼지입니다. 하늘이 파랗고 맑았던 어느 날 책캠퍼지는 사무실이 아닌 학교로 향했습니다. 예스24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캠페인 1차에서 23,676표를 얻어 1등이 된 학교, 웅동중학교에 책을 직접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죠. 이미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창원 산골에 있는 작은 학교라는 것만 알고 KTX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무려 3시간이 걸려 도착하게 될 곳에서 우리를 반겨 주실까? 귀찮아하시진 않을까? 학생들은 어떨까? 최대한 피해 드리지 말고 조용히 다녀와야 하는데.'

많은 생각과 걱정이 있었지만 책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처음 만나는 학교였기 때문에 가는 길 내내 설렘은 훨씬 컸습니다. 마침내 창원역에 내렸을 때 아름다운 산이 틈틈하게 저희를 맞아 주어 "진짜 예쁘다"는 책캠퍼지 일행의 감탄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섰을 때, 조용한 사람들과 풍경이 서울과 달라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또 얼마나 친절하신지 창원이 초행길인 우리들에게 가는 내내 창원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고 맛집도 소개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웅동중학교는 예쁜 산 아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인사하시고 교장실로 안내하셨습니다. 교장실 벽면에 걸린 사진을 봐도 작은 시골 학교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 다녀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고, 또 다녀가셨다기에 "터가 좋은 학교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중학교지만 한 번 오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면 마디하지 않고 모두 와주셨다고 하니 참 복이 많은 학교죠.

이번 일로 기부 의사를 밝히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지만 매스컴에 보도되었듯이 모두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스24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책 보내기 캠페인은 학생들이 직접 책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고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받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웅동중학교 지정 기부를 희망해 주신 박성희 님, 이동현 님, 이수연 님의 이름과 함께 준비한 기부 도서를 전달하고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와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나 회장 여학생은 평소 책을 좋아해서 언제쯤 책이 도착하나 선생님께 계속 여쭤봤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제가 왜 그리 뿌듯하고 기쁘던지요.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학생들, 반갑게 인사를 해주던 학생들, 갈 때까지 창문 밖으로 손 흔들어 주던 학생들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웅동중학교 학생들과 미래의 학생들까지 책을 많이 읽고 세상의 지혜를 모두 담길 바랍니다.

BOOK

여름이다. 산으로 바다로 떠나기보다
에어컨 앞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여름휴가 때 읽으면
좋은 책들이다.

"유가는 책을 끝어야 제 맛이지!"

여름휴가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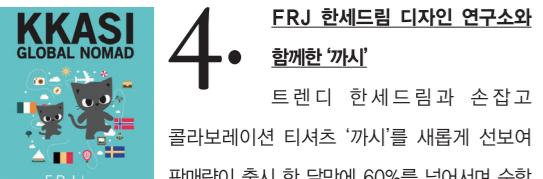
여행의 기술 일랭 드 보통 저/정영목 역 청미래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태원준 저 북로그컴퍼니	언어의 운동 이기주 저 말글터	휴식을 위한 자식 : 그림, 유아한 취미가 되다 최경철 저 청미라이상media	유럽의 시간을 걷다 최경철 저 웨일북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정희재 저 갤리온	나는 편편하게 살기로 했다 데이비드시버리 저/김정한 역 홍익출판사	알고리즘 행성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 제이슨 케이 저 제이펍	동화 넘어 인문학 조정현 저 을유문화사	어쨌거나 마이웨이 안드레아 오언 저/임가영 역 홍익출판사
하루의 설계도 로버트한터 저/맹슬기 역 에디시옹장물령	마흔이 되어버렸는걸 모리시타에미코 글,그림/김자혜 역 제이주의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 나희덕 저 달	여행과 독서 전홍조 저/오하나 역 시그마북스	인생의 재발견 비버리브래들리해거티 저/ 박상은 역 스몰빅인사이트
오직 두 사람 김영하 저 문학동네	라이프 프로젝트 헬렌피어슨 저/이영아 역 와이즈베리	하루하루 훌드리는 나를 불집아줄 결정적 한마디 유태진 저 다른상상	그대를 듣는다 정재찬 저 휴먼나스트	처음 만난 철학 히라히라스구루 저/이아랑 역 시그마북스

HEADLINE NEWS



2. 한세실업, 베트남 초등학교에 도서 1만 권 기증

한세실업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금호 아시아나 호텔에서 지난 5월 18일 '1만 권의 책-수백만의 사랑'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호치민시 교육부와 당위원회 등 베트남 고위관료들과 정우진 호치민시 한국영사관 부총영사, 코참 김홍수 회장, 섬유협회 김명환 회장 등 한국 측 주요 인사, 호치민시 초등학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문과 방송 등 현지 유력 매체 20여 명의 기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한세실업 베트남 현지 법인인 한세베트남과 한세예스24홀딩스가 함께 책 나눔을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현지 아동도서 작가와 출판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가 엄선한 100종의 책 1만 권은 호치민 소재 100개 초등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4. FRJ 한세드림 디자인 연구소와 함께한 '까시'

트렌디 한 세드림과 손잡고 콜라보레이션 티셔츠 '까시'를 새롭게 선보이며 판매량이 출시 한 달만에 60% 넘어서며 순항 중이다. 이와 같은 인기는 부모와 아이가 까시 티셔츠를 패밀리웨어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실시한 가정의 달 맞이 프로모션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세드림의 캐릭터 디자인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탄생한 캐릭터 티셔츠 '까시'는 에프알제이의 글로벌하고 자유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모험쟁이 고양이'에 반영하여 친화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총 6종의 디자인으로 출시돼 전 연령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6. 컬리수, '제1회 프렌치아뜰리에(아트클래스)' 성료

지난 5월 20일 서울 중구 'ZUT 아뜰리에'에서 제1회 프렌치아뜰리에가 실시되었다. '프렌치아뜰리에(아트클래스)'는 지난 해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프



I.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 한세실업 적극 지원 약속
지난 4월 12일(현지시각) 현지 '소나피 공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현장을 찾은 모이즈 아이티 신임 대통령은 한세실업 프로젝트 현장 부지와 한세실업 아이티 50·21공장을 차례로 방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모이즈 대통령은 "아이티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한세실업의 프로젝트는 정책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한세실업 공장의 신속한 건설 추진을 약속하며 소나피공단장에게 직접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세실업은 2023년까지 '생산거점 다각화'를 통해 지속성장 시스템을 구축, 연 매출 3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랑스에 자리한 소나피 공단에 진출해 '한세실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세실업 아이티 50·21공장 등에 현지근로자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인력 2~3만 명 규모의 차세대 생산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3. FRJ 2017 미스코리아 본선 공식 후원
에프알제이진은 2017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제품을 제공하며 공식후원에 나선다. 이들은 합숙기간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에프알제이진 청바지를 착용하고 프로필 촬영 및 본선 진출을 위한 경합을 벌인다. 후보자들의 청바지 착장 이미지는 개인 SNS를 비롯해 미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에도 노출될 예정이다. 특히 미스코리아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류 중 데님 팬츠는 뛰어난 신축성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활동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디자인이 특징인 미.코.진 라인이 포함돼 있다. 올해로 61번째 대회를 맞이하는 2017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7월 7일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5. 제2회 모이ollen 가드닝 클래스 실시
지난 6월 24일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카페 '디얼 브라운'에서 모이ollen 가드닝 클래스가 실시되었다. 모이ollen의 새로운 고객 소통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 새롭게 탄생한 '가드닝 클래스'는 지난 3월 예비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1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3달 만에 2회 클래스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가드닝 클래스는 특별히 부부가 함께 참여해 친환경 '다육이 액자'를 만드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모이ollen은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혹은 맞벌이 때문에 평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부부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선사한다. 모이ollen 가드닝 클래스는 연간 3회 진행될 예정이다.

렌치 식사 에티켓 클래스'에 이어 컬리수가 두 번째로 기획한 프렌치 프로그램이다. 컬리수 프렌치아뜰리에의 첫 번째 행사는 '프랑스 아이는 말보다 그림을 먼저 배운다'의 저자 신유미 작가와 함께했다. 신 작가는 아이들에게 프랑스 동화책 '내 초능력이 사라진 날'을 직접 읽어준다. 동화책 낭독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같이 들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동화 속 잃어버린 초능력을 직접 그림으로 그린 후 '초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했다. 먼저 그린 밀그림을 뒤에 대고 천을 자르고 이어 붙인 다음, 재봉틀을 활용해 자신만의 티셔츠를 완성한다.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원자 수가 400명이 넘어 아이 20명을 선정해 A반 B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당일 행사에 부모와 아이 총 40여 명이 100%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7. 고등학생을 위한 수학 기본서
"코드엠" 출간
동아출판이 고등 수학 개념 기본서 코드엠을 출시했다. '코드엠'은 이해하기 쉬운 개념 유형별 문제로 학생들이 첫 번째 개념 기본서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교재이다. '코드엠'은 개념과 예제의 중복 설명을 줄인 슬림한 구성으로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짧은 문장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요소를 단순화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학습이 용이하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비슷한 해결 방법을 갖는 문제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스마트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교재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코드엠 공식노트'를 제공하는 코드엠 출간 이벤트도 진행한다.



9.

버커루, CJ슈퍼레이스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한 이벤트 성료

버커루는 지난 18일 용인 에버랜드스피드웨이에서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진행했다. 3라운드에서는 하바나시리즈 착용한 슈퍼레이스 모델들이 버커루 부스 앞에서 포토타임을 진행하였으며, 버커루는 현장에 홍보부스를 진행하며 비밀번호를 맞춰 버커루의 신상을 받을 수 있는 시크릿 박스 이벤트와 슈퍼레이스 현장 사진을 공유하는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SNS 이벤트를 진행해 개막전을 찾은 관객들의 재미를 더했다.



II. 예스24, 홍대에 서브컬처 복합매장 '홍대던전' 3일 오픈
예스24는 지난 6월 3일 홍대입구역 인근에 서브컬처 복합 문화공간 '홍대던전'을 오픈하였다. 서브컬처 관련 매장이 포진된 짊음의 거리 홍대에 자리 잡은 '홍대던전'은 홍대 서교호텔 별관 3층에 약 120평의 규모로 들어서며, 2층에 위치한 예스24 종고서점 홍대점과 연결되는 계단이 내부에 마련되어 있다. '홍대던전'에서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과 코스프레 전문용품 등 다양한 서브컬처 굿즈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무료로 라이트노벨을 읽을 수 있는 열람 공간 '라이트노벨 도서관'과 서브컬처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무대 및 기획 전시 공간을 마련해, 서브컬처 제품 판매 외에도 마니아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브컬처 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칭구가 되도록 돋는다. 이울러 판타지 애니메이션과 게임 속 캐릭터, 메뉴 등을 모티브로 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컨셉 레스토랑도 추후 오픈 예정이다.



8. 서울교대와 함께하는 '동아 하이탑 과학캠프' 성공적 개최
동아출판은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동아 하이탑 과학캠프'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본 캠프는 교육출판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잘 살리는 동시에 직원이 직접 함께하는, 한층 진화한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하고자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창의융합교육연구센터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획운영되며, 매년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제1기 캠프는 지난 5월 20일과 21일에 걸쳐 초등 3~6학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체험, 코딩 기반의 로봇 조종, 광섬유 조명 만들기, 드론 날리기 등 학생들이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독특한 과학창의 체험 기회를 마련,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동아출판은 본 과학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업계의 선도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10. NBA 파이널 4차전 관립한 박재범, 경기장 스타일 화제

지난 6월 10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미국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쿠르츠 아레나에서 펼쳐진 빅매치 '2016~2017 NBA 파이널 4차전'을 침관한 국내 대표 힙합 뮤지션 박재범, 로꼬, 펌킨의 스타일이 현지 농구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멀티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 NBA의 초청으로 이번 경기를 관람하게 된 박재범은 '클리블랜드캐벌리어스'의 팀 로고가 돋보이는 티셔츠와 모자를 스타일링해 NBA 팬의 면모를 유감 없이 드러냈다.



12.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카르타 플러스' 출시

예스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등 국내 서점 3사가 설립한 전자책 전문기업 한국이파브(대표 김기호)가 프리미엄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카르타 플러스(Crema Carta+)'를 출시했다. 이는 2015년 선보여 7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한 '크레마 카르타'의 후속 버전이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크레마 카르타 플러스'는 기존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선명한 화질뿐만 아니라 무선 리모콘, 사이드키 탑재 등 독서에 편리한 기능이 추가됐다.